

제16장 환원 사상(2)

II. ‘성서관’(聖書觀)

강명석 선교사는 인류역사상 성서보다 더 좋은 책이 발견된 적이 아직 없으며, 성서보다 더 많이 출판된 책도 없고, 성서보다 인류에게 더 많은 유익(有益)을 주는 책도 저술(著述)된 적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신·구약 성서 66권 가운데 어느 책도 인류에게 불필요한 메시지(message)를 전해주는 책이 없으므로,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는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서로 돌아가자(성서의 권위를 회복시키자)’라고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잘 기억한다. ‘모든 성서는 하나님의 영감(靈感)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유능(有能)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디모데 후서 3:16~17)’... 개인 생활이나 단체생활이 처참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받은 메시지가 그

번을 읽고, 열 번을 읽은 자는 백번을 읽고, 백번을 읽은 자는 천 번을 읽으라’라는 부탁인 것이다. 왜냐하면, 성서는 삶의 활력소(活力素)를 불어 넣어줄 뿐만 아니라, 생의 방향을 잡아주고, 광명의 빛을 비춰서 밝은 미래로 이끌어 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특히 그는 미국교회 목회자들의 성서에 관한 신앙(성서관)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자신의 성서관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성서 전부(全部)를 하나님의 계시(啓示)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믿는 자가 있다… 루터교회(Lutheran Church): 98%, 복음교회(Evangelical Church)와 침례교회(Baptist): 70%… 그리스도의 교회: 100%, 장로교회: 66%, 감리교회: 53%, 회중교회(Congregational Church): 40%… 목회자 중 4분의 1이 성서가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되었다는 것과 다른 종교 서적보다 다르다는 것을 배척(排斥)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서를 정경(正經)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장로교회 목회자들이 절반 정도나 되었다……. 특별히 눈여겨볼 일은 성서의 주장과 그들의 신앙이 같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목회자…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는데, 그 기사를 부인하는 장로교회의 목회자들 가운데 거의 절반 정도나 된다는 것은 우리

의 눈길을 끈다.” [「미국목사들의 신앙관」, 8~9.]

[illegible]

환원역사연구소

강명석 선교사는 먼저 미국교회 목회자의 1/4 정도가 성서를 하나님의 계시(啓示)로 믿지 않고 있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장로교회 목회자들의 절반 정도가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불변(不變)하시는 분으로, 그리스도의 동정녀(童貞女) 탄생(誕生)을 믿지 않고 있는 점을 눈여겨보라고 하였다. 또한, 장로교회 목회자들의 성서와 삶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교회 전도자들은 성서의 모든 내용을 100% 믿는다는 주장으로 자신의 성서관도 같다고 밝혔다. 나아가 강명석 선교사는 모든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계시인 ‘성서로 돌아가자 즉 성서권위를 회복시키자’라고 하였으며, 매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탄생,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인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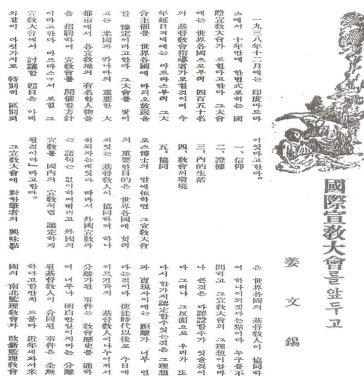
성령의 역사, 큰 계명, 새 계명, 사랑과 소망, 기도, 성서공부, 모임, 교제, 성결, 그리스도인의 삶, 회개, 영생 등'을 강론하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자고 제언(提言)하였다.

Ⅲ. '교회일치(教會一致)'

강명석 선교사는 1938년 12월에 인도(India) 마드라스(Madras)에서 개최되는 국제선교대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nference, IMC)에 대한 소식을 그해 11월에 접한다. 그 소식 중에서 그의 관심을 끈 것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있는 기독교인들이 합동(연합)하여 하나가 되자'라고 슬로건(slogan)으로 내건 선교대회의 목적이었다. 이때 그는 사도시대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파의 분열은 계속되고 있지만, 분리된 교파의 교회들이 합동한 사건은 매우 드물다면서 미국 감리교회를 한 예로 들어 교회 일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얼마 전에 미국의 남·북감리교회와 개신교감리교회가 합동(合同)하기로 결의된 사실이 있지만, 그것은 감리교회가 도로 감리교회가 된 것이니 세계적으로 불

때는 그 사건을 기독교인의 합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유치(幼稚)한 감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감리교회가 도로 감리교회 되기 위해서 매우 심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 현재 미국교회를 보더라도 각 교파에서 시작한 선교사업도 억지로 유지하여가는 형편이므로, 협동 선교사업을 실행할 가능성은 희박(稀薄)하다고 볼 수 있다.” [「국제 선교대회를 앞두고」, 11~12.]



환원역사연구소

그리스도의 교회가 동방교회(정교회, 희랍정교회, 비잔틴 교회, 그리스어 교회)와 서방교회(로마가톨릭 교회, 천주교회, 라틴어 교회)로 불리다가 1054년 처음으로 동방의 희랍정교회(Greek Orthodox Church)와 서방의 로마가톨릭교회(Roman Catholic Church)로 각

각 분열하였다. 그리고 16세기에 교회개혁자들에 의한 교회개혁 운동(church reform movement)으로 프로테스탄트 교회(protestant church) 즉 개혁교회(reformed church)들이 태동하였다. 그러나 개혁교회들은 다시 수많은 교파형 교회로 분열하였다.

그래서 교파형 교회들은 더 이상의 교회분열을 지양(止揚)하고 교파와 개 교회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연합(합동, 통일)하자는 일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운동은 1910년 영국(United Kingdom) 에든버러(Edinburgh)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 선교 회의(World Missionary Conference, WMC)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 운동을 교회연합운동(教會聯合運動) 혹은 에큐메니컬 운동(Ecumenical Movement), 교회일치운동이라고 한다.

이와는 다르게 강명석 선교사는 교회일치란 교회의 보편성(普遍性)을 통한 연합이라는 에큐메니컬 운동이 아닌 하나의 교회 즉 원형교회인 그리스도의 교회로의 일치를 주장하였다. 그러기에 강명석은 2개 교파형 교회가 1개 교파형 교회로 합동한다거나 모든 교파형 교회가 연합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 의미를 두지 않았으며, ‘유치한 생각이 든다.’라고 말할 정도로 무관심하였다. 그리고 ‘사도시대 이후로 사람들의 생각대로 만든 교파와 교파의 신학, 신조와 헌법과 인위적인 제도를

버리고 내용과 형식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교회일치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강명석 선교사는 먼저 내용(內容)의 일치란 '성서만이 예배의 모범이며 교회의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인간이 만든 교과의 헌법(憲法), 신조(信條), 예전(禮典) 등 각종 제도는 교과분열의 원인을 제공하므로 성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오직 성서로의 일치를 주장하는 견해이다. 다음으로 형식(形式)의 일치란 각 교과의 명칭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로의 일치만이 진정한 교회일치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같은 하나님과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성서를 믿는 우리는 ‘말, 신앙(信仰), 주장(主張), 전하는 복음(福音), 신경(信經), 행함’도 같아야 한다. 오늘날 조선에 기독교 교파가 많아지는 데 따라 ‘신앙, 신경, 장정(章程), 교회조직, 예배절차’ 등이 성서의 주장과 다른 신자와 교파가 있는 것은 우리의 주의를 끈다. ‘몸, 성령, 소망, 주, 신앙, 세례, 하나님’, 다 하나이므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미국목사들의 신앙관」, 9.]

“기독교인이 세계적으로 하나가 되려면 먼저 사도

시대 이후 마음대로 기독교인이 만들어 놓은 인간적 장벽(障壁)…。 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 어 놓은 경계선(신학)을 그대로 신뢰하면서, 기독교인의 협동사업을 도모하거나 예수의 정신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에누리(discount)를 하더라도 웃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조선에서도 기독교회의 연합운동 혹은 연합적 기분이 유행하는 모양이지만 그것은 조선의 교파, 조선의 신학이 소멸(消滅)하기 전에는 아이들의 소꿉장난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국제 선교대회를 앞두고」, 12.]